青馬의 해… 힘찬 새해 여는 '장흥 애마가족' 이명원·김지나 부부

"건강과 화목, 말과 함께하며 받은 선물이죠"

'말의 해'를 맞아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슬로시티 승마장에서 새로운 새해 다짐을 하고 있는 장흥 애마(愛馬)가족. 왼쪽부터 막내 차미양, 아버지 이명원 씨, 큰딸 나라 양, 어머니 김지나 씨, 쌍둥이 형제 승호·경호군.

"말을 함께 타면서 가족이 건강해지고, 화목해졌습니다."

이명원(42·장흥 슬로시티 승마장 대표)·김지나 부부 가족은 애마(愛馬)가족이다. 부부뿐만 아니라 쌍둥이인 경호·승호(18) 형제와 나라(15)·차미(5)자매 모두 말을 잘 탄다. 승마 마니아인 아버지 덕분에 일찌감치 말과 친해지며 수년간 말을 타왔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께 승마에 입문한 이 대표는 지난해 2월 농·어촌형 승마장으로 정식 인가를 받아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일원 '슬로시티'를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불과 4분 차이로 형과 아우의 서열이 정해진 형제는 9년여전 아버지를 따라 순천을 오가며 승마를 접했다.

경호·승호 형제는 "처음에는 말을 타는 것이 무섭고, 양다리에 힘을 줘 말 몸통을 감싸는 것이 힘들었다. 낙마(落馬)도 여러 차례 했다. 하지만 지금은 재미있고, 신난다"고 말했다.

이어 "물 축제 등 행사장에서 승마시범을 보이면 친구들이 '멋있다'고 한다"며 웃었다. 형제는 마장 내를 질주하기도 하고 장애물을 뛰어넘기도 하는 등 능수능란하게 말을 다뤘다.

큰 딸 나라양은 6살 때 말을 처음 탔다. 지금은 자전거 타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

쌍둥이 형제, 말산업고 진학 '애마신동' 5살 막내딸 화제

한창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야 할 나이인 막내 차미양은 말채찍을 왼손에 들고 의젓하게 퇴역 경주마인 '용백이'를 탄다. 생후 18개월 때 처음 말을 탔고, 지난해 6월부터는 혼자 고삐를 잡고 탄다. 간혹 말을 타다가 말 잔등에서 졸기도 할 정도다. 지난해 10월에는 공중파 방송에 '애마 신동'으로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호연지기 기르고 행복해져 승마, 누구나 쉽게 즐겼으면

엄마 지나 씨도 자녀와 같은 시기에 승마를 시작했지만 겁이 나 접었다가 식구들 모두 승마에 심취하자 다시 말을 타게 됐다.

이 대표는 "인간과 말이 일체가 돼 같이 호흡하는 승마는 운동량이 많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호연지기(浩然之氣)도 길러주는 레저 스포츠"라면서 "승마를 한 이후 아이들이 책임감이 강해지고 부지런해졌다"고 강조했다.

장흥군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역에서 승마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말의 해'인 올해 이 대표 가족의 꿈은 뭘까?

형제는 오는 2월 중학교 졸업후 장흥 말 산업고에 진학해 '말 조련사'(형)와 '말에 관련된 것'(동생)을 다하고 싶은 꿈을 품고 있다.

이 대표는 승마의 대중적인 보급과 함께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승용마 생산에 주력할 생각이다.

이 대표는 "'말띠 해'를 맞아 많은 사람이 승마를 배워봤으면 한다. 한 달에 20여만원 미만 비용으로 승마를 즐길 수 있다. 앞으로 말을 짐승이 아니라 교감하는 반려자로 키워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 새 학기부터 말 산업고에서 승마 교육(주 4시간)을 담당할 예정이어서 형제도 조교로 거들게 된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광주시 스포츠 영향력 세계 34위

英 스포츠마케팅硏 100대도시 선정… 평창 22위

스포츠 변방 도시였던 광주시가 스포츠에 영향력 있는 세계 100대 도시 중 34위에 이름을 올렸다.

영국의 스포츠 마케팅 연구소인 스포트칼(Sportcal)은 "지난 200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열리는 약 700개의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대상으로 국가 및 도시별 스포츠 영향력을 연구한 결과,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강원도 평창이 22위,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광주시가 34위를 기록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어 인천(59위), 강릉(74위), 대구(76위) 등 국내에서 5개 도시가 세계 도시 중 스포츠 영향력 있는 100대 도시로 선정됐다.

세계 스포츠에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로는 최근 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했던 영국 런던이 1위를 기록했으며, 러시아 모스크바(2위), 브라질 리오(3위), 중국 베이징(4위), 일본 도쿄(5위) 순이었다.

국가별 영향력은 중국이 1위를 기록했고, 러시아(2위), 영국(3위), 캐나다(4위), 이탈리아(5위) 순이었다. 한국은 10위를 기록했다.

국가·도시별 스포츠 영향력은 200여명의 스포츠계 전문가(학계, 건설, 스포츠 대회 유치위원, 도시 전문가, 올림픽 위원, 정부 기관 및 산하기구 관계자, 컨설턴트 등)들이 경제, 재정, 스포츠, 미디어, 사회, 환경 등 6개 분야의 지표를 바탕으로, 상위 100개 도시와 78개 국가를 선정했다.

김준영 광주시 체육진흥과장은 "스포츠 변방 도시이던 광주가 민선 5기들어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급부상했다"면서 "광주 공동체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국제도시가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문화전당 법인위탁 운영 제동걸리나

박혜자 의원, 법인위탁 범위 제한… 정부 재정지원 구체화 법률 개정안 발의

오는 2015년 개관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의 법인위탁 범위를 제한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구체화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정부가 지역민들의 여망과 달리 문화전당의 전체 운영을 특수법인에 맡기려는 데 사실상 제동을 거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광주 서구 갑) 의원은 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같은 법 개정안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는 대체입법 성격을 띄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가장 두드러진 부문은 애초 정부의 개정안에 담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전당)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시아문화원 또는 관련 전문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완한 것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 조항과 관련,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의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해 문화전당에 '문화전당 운영협의회'를 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엄격한 심사 등을 거쳐 문화전당의 일부 운영을 특수법인에 위탁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모호했던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도 구체화 했다. "(정부가)문화전당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운영·확충비, 콘텐츠 개발 및 사업비 등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반면, 정부의 개정안에는 "문화전당(건물)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느슨한 조항이 들어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하에 두되, 문화전당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어 사실상 문화전당을 정부 소속기관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시아문화 관련 국제협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아시아문화원으로 확대개편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2월께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 정부안과 함께 상정돼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알림

'종교칼럼' 필진 바뀝니다

매주 금요일 연재되는 광주일보 '종교칼럼'이 1월부터 새로운 필진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불교·가톨릭·원불교·개신교 등 네 분의 성직자들이 들려주는 세상살이에 대한 위로, 신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삶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원재 목사 일선 스님 송지은 교무 김관수 신부

◇이원재(광주무등교회 목사)
▲광주기독교단협의회 회장 ▲기아대책 광주전남본부 회장

◇일선(장흥 보림사 주지)
▲불교신문 논설위원 ▲금천선원 선원장

◇송지은(광주원음방송 교무)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원불교 강남교당

◇김관수(천주교 광주대교구 청소년사목국장)
▲로마 살레시오 대학교 졸업 ▲광주봉선동성당 주임

光州日報社

人事말씀

今般 小生(故 鄭良今) 喪事時(二〇一三年 十二月 二十三日)에 公私多忙하심에도 不拘하시고 枉臨하시어 鄭重하신 弔慰와 厚意를 배풀어 주신 德澤으로 葬禮를 無事히 치루게 되었음을 眞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應當 찾아뵙고 人事올림이 道理인줄 아오나 于先 紙面으로 人事드림을 寬容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내내 健康하시고 萬事亨通하시길 眞心으로 所願드립니다。

二〇十四年 一月 三日

哀子 嗣子 金星秀 子婦 林賢蘭
女 宰亨 尹秀晶
손자 김 希 尹介
이이오 제재승부창 垠 李錫炯(前 함평군수)
제재승부창 垠 李錫炯(前 함평군수)
욱혁민성석 廷庭 李源鎬(계명대교수)
손녀 김 李源鎬(계명대교수)
護喪 金 映 寬 拜上
이이오 제제현태준소민중 안영주경이민정원

今般 當社 代表理事(金星秀。金宰亨) 母親(故 鄭良今)喪事時에 公私多忙 하심에도 不拘하시고 枉臨하시어 鄭重하신 弔慰와 厚意를 배풀어 주신 德澤으로 葬禮를 無事히 치루게되었음을 眞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물레방적 주식회사
영백염전 주식회사
그린장례식장 주식회사
덕호태양광발전 주식회사
해피투모루 주식회사
무등산레져 주식회사

임원·직원 일동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 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전화 본 점:361-3515 양동지점:362-6164
각화지점:268-6163 풍암금호지점: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46번길 3

부 고

최병관 아버님 용주(삼양물산·삼양과 자연·구, 삼양제사 설립 회장)께서 노환으로 2014년 1월 1일 오전 10시 별세 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발인일시 : 2014년 1월 4일(토) 오전 08:30분
발인장소 :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4호
장 지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마령리 서릉공원묘지

2014년 1월 3일

미망인 손 동 표
아 들 최 병 관
병 철
병 권
병 욱
딸 양 자
경 숙
혜 정
강 희
외 가족일동

연락처 : 02-2227-7500(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 010-8622-8700
[개별부고 생략]
[고인의 유지에 따라 조의금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합니다.]